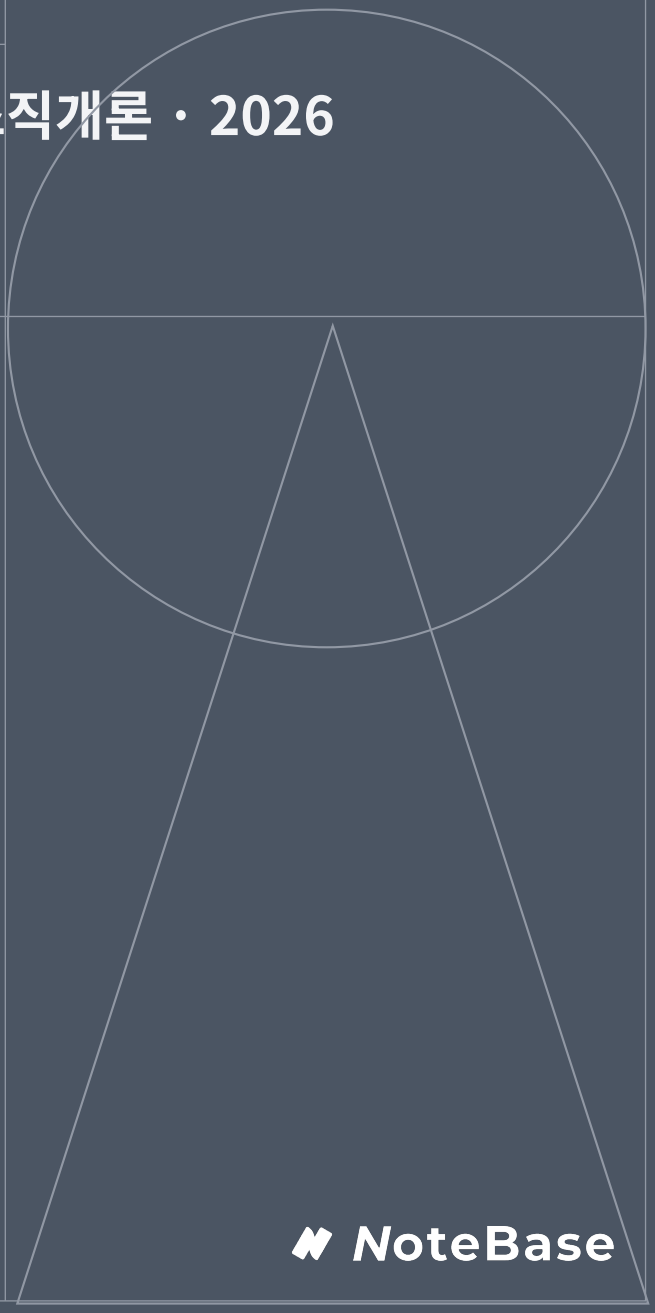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6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6

문 1.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접근방법 가운데,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주된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한 곳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② 각각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식별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해 여러 가지 경로로 분산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③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표준을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④ 메타데이터 요소의 등록이나 확인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기능과 응용 프로파일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를 등록·식별·관리하여 요소의 검색과 재사용을 돕는 체계이다.
응용 프로파일은 여러 표준의 요소를 특정 기관이나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선택·조합하고 필요한 제약을 더한 명세이다.
따라서 '요소의 등록·식별·재사용'은 레지스트리, '특정 상황에 맞춘 적용'은 응용 프로파일의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여러 표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메타데이터 요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기본 기능이다.
② O — 등록된 각 요소에 식별 정보를 부여하면 서로 다른 표준에서도 해당 요소를 찾아 재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분산 접근과 상호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표준을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레지스트리가 아니라 여러 표준의 요소를 특정 목적에 맞게 선택·조합하는 응용 프로파일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여러 표준의 요소를 등록·식별·관리하여 검색과 재사용을 지원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요소의 명칭·정의·식별자 등을 일관되게 등록하고 품질을 유지하려면 등록과 확인을 담당하는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여러 접근방법 가운데 응용 프로파일을 가리킨다. 레지스트리도 여러 표준을 다루므로 이 표현을 레지스트리의 기능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동사를 확인한다. 요소를 '등록·식별·검색·재사용'하면 레지스트리이고, 요소를 특정 목적에 맞게 '선택·조합·제약'하면 응용 프로파일이다.

암기 포인트

레지스트리는 요소를 모아 관리하고, 응용 프로파일은 목적에 맞게 골라 조합한다.

NoteBase

문 2. 분류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해리스(W. T. Harris)의 분류법은 도서를 서가에 주제순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숫자를 사용하여 100구분하고, 각 류의 세목은 알파벳 대문자 1자를 부가하였다.

② 블리스(H. E. Bliss)의 서지분류법(Bibliographic Classification)은 5개의 공통패싯을 이용한 분석합성식 원리를 수용하여 이후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③ 카터(C. A. Cutter)의 전개분류법(Expansive Classification)은 모든 지식을 주제의 진화순서로 배치하였으며, 총 5개의 독립적인 표로 구성하여 장서수가 많은 도서관일수록 상세한 분류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브라운(J. D. Brown)의 주제분류법(Subject Classification)은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을 상위에 배정하였으며,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혼합기호법을 채택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리스·블리스·카터·브라운의 분류법을 배열 원리, 표의 구성, 패싯, 분류기호와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해리스: 1부터 100까지의 근접류와 하위 구분용 문자를 사용한 분류법이다.
블리스: 공통패싯을 활용하여 복합주제를 분석한 뒤 기호를 합성할 수 있게 한 서지분류법이다.
카터: 도서관 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7개의 단계적인 독립 분류표로 전개분류법을 구성하였다.
브라운: 물질과 힘 → 생명 → 정신 → 기록의 순서로 주제를 배열하고 문자와 숫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해리스의 분류법은 근접류를 1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고 하위 구분에 문자를 덧붙였다. 틀린 표현은 '각 류의 세목은 알파벳 대문자 1자를 부가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1부터 100까지의 구분을 숫자로 표시하고, 그 세분에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한다.
② O —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은 형식·장소·시대·언어·민족의 5개 공통패싯을 활용하는 분석합성식 원리를 받아들였다. 블리스가 앞서 전개한 분류 이론은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옳다.
③ X — 전개분류법은 도서관의 장서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개의 독립적인 분류표로 구성된다. 틀린 표현은 '총 5개의 독립적인 표'이며, 올바르게는 '총 7개의 독립적인 표'이다.
④ X — 브라운은 물질과 힘에서 출발하여 생명, 정신, 기록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취하므로 자연과학 계열이 사회과학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을 상위에 배정'이며, 올바르게는 '사회과학보다 자연과학을 상위에 배정'이다.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혼합기호법은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100구분', ③은 '진화순서', ④는 '혼합기호법'처럼 맞는 특징에 한 부분씩 틀린 표현을 섞었다. 특히 ③의 5개는 블리스의 공통패싯 수와 혼동하기 쉽지만 카터의 전개분류표 수는 7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마다 대표 숫자와 배열 원리를 먼저 대응한다. 블리스는 5개 공통패싯, 카터는 7개 전개표, 브라운은 물질과 힘 → 생명 → 정신 → 기록으로 연결하면 선지의 바꿔치기를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블리스 5패싯, 카터 7전개표, 브라운은 물질부터 기록까지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따를 때, '중국의 서지 및 목록'에 대한 올바른 분류기호는?

015 국가별 서지 및 목록
국가서지 및 목록, 지방서지 및 목록, 정부간행물목록 등의 반서지를 포함한다.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특수 지역 및 주제에 관한 서지 및 목록은 016에 분류한다.

① 015.0912

② 016.912

③ 016.0912

④ 015.1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가별 서지 및 목록은 015에 분류하고, 지역구분표의 국가 기호를 015에 직접 부가한다는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분류 대상은 '중국의 서지 및 목록'이다.
주제의 중심은 특정 주제에 관한 서지가 아니라 국가별 서지 및 목록이므로 기본 분류기호는 015이다.
중국의 지역구분 기호 -12를 직접 부가하면 015.12가 된다.

핵심 개념

015는 국가별 서지 및 목록을 분류하는 항목이다. 제시된 주기에서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고 했으므로 중국의 지역구분 기호 -12를 015에 직접 결합한다. 016은 특수 지역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서지 및 목록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

먼저 서지의 구분이 국가별인지 특수 지역·주제별인지 판단한다. 국가별이면 015를 선택한 뒤 해당 국가의 지역구분 기호를 직접 부가한다. 따라서 015 + -12 = 015.1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015를 선택한 점은 맞지만, 중국의 지역구분 기호 앞에 09를 덧붙인 015.0912는 잘못이다. 제시된 주기는 지역구분표에 따라 직접 세분하도록 하므로 올바르게는 015.12이다.
② X — 016은 특수 지역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서지 및 목록에 쓰는 분류기호이므로 국가별 서지인 이 문항에 적용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015.12이다.
③ X — 016을 선택한 것과 09를 덧붙인 것이 모두 잘못이다. 국가별 서지에는 015를 쓰고 중국의 지역구분 기호 -12를 직접 부가하므로 올바르게는 015.12이다.
④ O — 국가별 서지 및 목록의 015에 중국의 지역구분 기호 -12를 직접 부가한 015.12가 올바른 분류기호이다.

오답 포인트

'중국'이라는 지명을 보고 016을 선택하거나, 지역구분 앞에 09를 자동으로 붙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015의 주기인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가 직접적인 판단 근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표 발췌 문제에서는 먼저 분류 대상의 성격으로 기본 분류기호를 정하고, 이어서 주기의 세분 지시를 그대로 적용한다. 국가별 서지이면 015를 선택하고 지역구분 기호를 직접 결합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별 서지 015 + 중국 -12 = 015.12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David Pullman이 쓴 'A biography of President Donald Trump'의 저자기호를 작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249 Davi	674 Don	981 Pul	869 Trumbull, J.
251 Davids	675 Donal	982 Pull	871 Trumbull, S.
252 Davidson	676 Donalds	983 Pult	872 Trur

① T872p

② T871p

③ P982t

④ T871b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개인전기의 저자기호는 피전자의 성을 기본으로 표에서 번호를 정한 뒤, 전기 저자의 성 첫 글자를 소문자로 덧붙여 작성한다.

자료 읽는 순서

1. 책의 피전자는 Donald Trump이므로 기본 저자기호는 Trump의 성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표의 알파벳 배열에서 Trump는 '871 Trumbull, S.' 뒤이면서 '872 Trur' 앞에 놓이므로 바로 앞 항목의 번호 871을 적용하여 T871로 만든다.
3. 전기 저자 Pullman의 성 첫 글자 p를 소문자로 덧붙여 T871p로 완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T872p의 872는 Trump보다 뒤에 놓이는 ‘Trur’ 항목의 번호이다. Trump는 ‘Trumbull, S.’와 ‘Trur’ 사이에 있으므로 T871p가 옳다.
② O — 피전자 Trump에서 T871을 정하고 전기 저자 Pullman의 첫 글자 p를 붙였으므로 T871p가 된다.
③ X — P982t는 저자 Pullman을 기본기호로 삼고 Trump의 첫 글자를 덧붙여 피전자와 저자의 자리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개인전기이므로 T871p가 옳다.
④ X — T871까지는 맞지만, 덧붙이는 소문자는 ‘biography’의 b가 아니라 전기 저자 Pullman의 성 첫 글자 p이다. 따라서 T871p가 옳다.

오답 포인트

872를 Trump와 가장 가까운 번호로 보거나, 책의 실제 저자 Pullman을 기본기호로 삼기 쉽다. 표에서는 Trump의 알파벳상 바로 앞 항목인 ‘Trumbull, S.’의 871을 취하고, 개인전기에서는 피전자를 앞세운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개인전기의 피전자와 전기 저자를 구분한다. 피전자의 성을 표의 알파벳 순서에 넣어 바로 앞 항목의 번호를 취한 다음, 전기 저자의 성 첫 글자를 소문자로 붙인다.

암기 포인트

개인전기는 ‘피전자 기호 + 전기 저자 성의 첫 소문자’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5.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MODS는 도서관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구축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② 기존의 MARC를 보다 상세한 형태로 구축한 도서관에 특화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③ MODS는 인쇄형태 정보자원에 특화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서지적 구조의 마련을 위해 구축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④ MODS는 HTML 구문을 적용함으로써 MARC의 데이터 요소와 의미를 손실 없이 변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MODS의 개발 목적, 표현 구문, MARC와의 상세도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ODS는 도서관 환경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2002년에 개발된 XML 기반 서지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MARC의 주요 서지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MARC보다 단순하고, Dublin Core보다는 풍부한 기술 수준을 지향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MODS는 도서관 환경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개발된 메타데이터 표준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기존의 MARC를 보다 상세한 형태로 구축한'이다. MODS는 MARC보다 상세한 표준이 아니라 MARC의 주요 요소를 선별하여 더 단순한 구조로 표현한 표준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인쇄형태 정보자원에 특화된'이다. MODS는 인쇄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기술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④ X — 틀린 표현은 'HTML 구문'과 '의미를 손실 없이 변환'이다. MODS는 XML 구문을 사용하며 MARC의 모든 데이터 요소를 완전히 보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요 서지 요소를 선별하여 표현하는 구조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MODS가 MARC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MARC보다 더 상세하다'로 뒤집고, ④는 XML을 HTML로 바꾸면서 MARC와의 변환도 무손실이라고 과장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ODS 선지는 '2002년·도서관 환경·다양한 자원·XML·MARC보다 단순함'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인쇄자료 전용', 'MARC보다 상세함', 'HTML', '무손실 변환'이라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ODS는 2002년, XML 기반, MARC보다 단순하고 Dublin Core보다 풍부한 서지 메타데이터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접근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 구문, 규칙 등을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보자원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표준을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접근방법

①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

② 크로스워크(crosswalks)

③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④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metadata framework)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를 특정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조합하고 세부 적용 규칙을 정하는 접근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거나 조합하고, 특정 응용 환경에 맞도록 사용 조건과 규칙을 구체화한 명세이다.
크로스워크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대응 요소를 연결한 변환표이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스키마의 정의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는 여러 메타데이터의 관계와 운용을 포괄적으로 조직하는 상위 구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여러 표준의 데이터 요소·구문·규칙을 특정 상황에 맞게 특화하여 적용하도록 상세히 정의한다는 설명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크로스워크'이다. 크로스워크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의 요소 사이에 대응 관계를 설정하여 데이터 변환이나 교환을 돕는 방식이다. 이 지문의 올바른 개념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이다.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데이터 요소, 스키마, 식별 정보와 그 정의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공유와 재사용을 지원한다. 이 지문의 올바른 개념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이다.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는 여러 메타데이터 표준과 구성 요소의 관계 및 운용 원리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상위 구조이다. 이 지문의 올바른 개념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공통 목적만 보고 크로스워크나 레지스트리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핵심 표현은 여러 표준을 ‘특정 상황에 맞는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요소와 규칙을 상세히 정의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응용 환경에 맞춘 요소 선택·조합과 세부 규칙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표준 간 요소 대응이면 크로스워크, 정의의 등록·관리이면 레지스트리, 전체 관계를 아우르는 상위 구조이면 프레임워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프로파일은 맞춤 적용, 크로스워크는 요소 대응, 레지스트리는 등록·관리, 프레임워크는 상위 구조이다.

NoteBase

문 7.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요소 중 <originInfo> 요소의 하위요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issuance>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정보자원이 발행되는 주기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② <frequency>는 정보자원이 간행되는 빈도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며, 연속간행물 형태의 정보자원일 경우에만 이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place>는 정보자원의 발행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며, 2차적인 하위요소로 <citySection>을 적용하여 발행지명을 입력할 수 있다.

④ <dateCaptured>는 정보자원에 수록된 내용이 유효한 날짜를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MODS의 <originInfo> 아래에서 <issuance>, <frequency>, <place>, <dateCaptured>, <dateValid>이 각각 어떤 발행·생성 정보를 나타내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suance>는 자원이 단행 방식인지 계속 발행되는 방식인지와 같은 발행 형태를 나타낸다. <frequency>는 계속 발행되는 자원의 간행 빈도를 나타낸다. <place>에는 발행·생산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기록하며, 장소명은 <placeTerm>에 입력한다. <dateCaptured>는 디지털화하거나 스냅숏으로 포착한 날짜이고, 내용의 유효일은 <dateValid>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issuance>가 발행 주기를 기술한다'이다. <issuance>는 monographic, continuing, serial 등 자원의 발행 형태를 나타내며, 발행 주기는 <frequency>로 기술한다.
② O — <frequency>는 정보자원이 간행되는 빈도나 발행 패턴을 기술하는 요소이며, 연속간행물과 같이 계속 발행되는 정보자원에 적용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citySection>을 적용하여 발행지명을 입력한다'이다. <place>가 발행지 등 장소 정보를 담는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장소명은 하위요소 <placeTerm>에 텍스트나 코드로 입력한다. <citySection>은 <place>의 하위요소가 아니다.
④ X — 틀린 표현은 '<dateCaptured>가 내용이 유효한 날짜를 기술한다'이다. <dateCaptured>는 자원이 디지털화되거나 스냅숏으로 포착된 날짜를 나타내고, 내용이 유효한 날짜는 <dateValid>로 기술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발행 형태와 발행 빈도를 바꾸어 놓았고, ④는 포착일과 내용 유효일을 바꾸어 놓았다. ③은 <place>의 기능 자체는 맞게 제시한 뒤 실제 하위요소인 <placeTerm> 대신 <citySection>을 넣은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소명의 핵심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ssuance는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가', frequency는 '얼마나 자주 발행되는가', captured는 '언제 디지털화·포착되었는가', valid는 '언제 내용이 유효한가'를 나타낸다. 장소명은 <place> 아래 <placeTerm>에 기록한다.

암기 포인트

발행 형태는 <issuance>, 발행 빈도는 <frequency>, 장소명은 <placeTerm>, 포착일은 <dateCaptured>, 내용 유효일은 <dateValid>이다.

NoteBase

문 8. KCR 제5판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체 간 서지적 관계를 구조화하여 기록함으로써 목록의 링크 기능이 강화된다.

② 구조적 측면에서 KCR 제4판은 자원유형별 ISBD를, KCR 제5판은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③ KCR 제5판은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모두 규정하여 기계가독성을 높였다.

④ 전거제어를 규칙상에서 명확히 하고, 모든 저작에 대해 전거 제어를 실시하도록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CR 제4판과 제5판의 기반 구조, 규정 범위, 관계 기록, 전거제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CR 제4판: 자원유형별 ISBD를 기반으로 하며, 요소의 의미와 이를 배열·표시하는 구문을 함께 규정한다.
KCR 제5판: FR 개념모형에 따라 개체·속성·관계를 구조화하고, 내용 요소의 의미를 규정하되 구문은 별도의 인코딩 형식에 맡긴다. 또한 저작·표현형·개인·가계·단체의 제어형접근점 규정을 마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KCR 제5판은 개체 사이의 관계를 식별기호, 전거형접근점, 관계표시어 등으로 기록한다. 관련 개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므로 목록의 링크 기능이 강화된다.
② O — KCR 제4판은 자원유형별 ISBD를, KCR 제5판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등의 FR 개념모형을 구조적 기반으로 삼는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모두 규정'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KCR 제5판은 요소의 의미적 측면만 규정하고 구문적 측면은 별도의 인코딩 형식에서 다루며, 두 측면을 모두 규정한 것은 KCR 제4판이다.
④ O — KCR 제5판은 접근점 규정을 신설하여 전거제어를 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모든 저작에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기계가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표현에 끌리면 의미와 구문을 모두 규정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핵심 오류는 효과가 아니라 '모두 규정'이라는 규정 범위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KCR 제4판과 제5판을 비교할 때는 기반 구조와 규정 범위를 분리한다. 제4판은 자원유형별 ISBD와 의미·구문을 함께 규정하고, 제5판은 FR 개념모형과 의미 중심 규정, 관계·접근점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KCR4는 자원유형별 ISBD·의미와 구문, KCR5는 FR 개체·관계·접근점·의미 중심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KORMARC에서 분류기호와 청구기호를 기술하는 필드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② 080 듀이십진분류기호

③ 082 국제십진분류기호

④ 086 기타 분류기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ORMARC의 숫자 필드와 각 필드에 기록하는 분류기호의 종류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056은 한국십진분류기호(KDC), 080은 국제십진분류기호(UDC), 082는 듀이십진분류기호(DDC)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기타 분류기호는 085, 정부문서분류기호는 086에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056 필드는 한국십진분류기호(KDC)를 기술하므로 연결이 옳다.
② X — '080 듀이십진분류기호'가 틀렸다. 080은 국제십진분류기호(UDC)이고, 듀이십진분류기호(DDC)는 082에 기술한다.
③ X — '082 국제십진분류기호'가 틀렸다. 082는 듀이십진분류기호(DDC)이고, 국제십진분류기호(UDC)는 080에 기술한다.
④ X — '086 기타 분류기호'가 틀렸다. 기타 분류기호는 085에 기술하며, 086은 정부문서분류기호를 기술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UDC와 DDC의 필드 번호를 서로 바꾸어 놓았고, ④는 서로 이웃한 085와 086의 용도를 바꾸어 놓았다. 분류법의 약칭과 필드 번호를 한 묶음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필드 번호를 056-KDC, 080-UDC, 082-DDC, 085-기타 분류기호, 086-정부문서분류기호의 기준 대응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056은 KDC, 080은 UDC, 082는 DDC, 085는 기타, 086은 정부문서이다.

NoteBase

문 10. 십진분류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순수기호법이다.

② 모든 주제에 대하여 물리적 형태(매체 유형)를 1차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계층이 깊어질수록 분류기호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④ 지식을 10개 주류로 구분하고, 각 주류를 다시 10개씩 계층적으로 세분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십진분류법이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지식을 계층적으로 구분한다는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십진분류법은 지식 전체를 10개의 주류로 나누고, 각 주류를 다시 10개씩 단계적으로 세분하는 계층적 주제 분류법이다. 분류기호에는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하는 순수기호법을 적용하며, 하위 주제로 세분될수록 기호가 길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십진분류법은 분류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므로 한 종류의 기호만 쓰는 순수기호법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물리적 형태(매체 유형)를 1차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자료가 다루는 주제 내용을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③ O. 십진분류법의 기호는 계층 구조를 반영하므로 더 구체적인 하위 주제로 내려갈수록 분류기호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④ O. 지식을 10개의 주류로 나누고 각 주류를 다시 10개씩 세분하는 방식은 십진분류법의 기본적인 계층 원리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물리적 형태'가 함정이다. 도서·영상·전자자료와 같은 매체 유형은 자료의 외형적 형식이고, 십진분류법의 기본 배열 기준은 자료가 무엇을 다루는지를 나타내는 주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십진분류법의 기본 원리는 '주제 중심, 10진식 계층 세분, 아라비아 숫자, 하위 단계일수록 긴 기호'로 판단한다. 매체 유형을 모든 주제의 1차 기준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십진분류법은 형태가 아니라 주제, 10개씩 세분, 깊어질수록 기호가 길어진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도서관에서 청구기호(call number)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SBN

② 분류기호

③ 도서기호

④ 권호기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도서의 서가상 위치를 나타내는 청구기호와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식별하는 ISBN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청구기호는 도서관 자료를 분류하고 같은 분류 안에서 개별 자료를 배열하기 위해 부여하는 기호이다.
기본적으로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로 구성되며, 자료에 따라 권호기호 등의 부차적 기호가 덧붙는다.
ISBN은 특정 판·형태의 단행본을 국제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표준번호로,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ISBN은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식별하는 표준번호이지, 서가 배열을 위한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ISBN'이며, 올바르게는 '분류기호·도서기호와 필요에 따라 붙는 권호기호 등의 부차적 기호'가 청구기호를 구성한다.
② O —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를 분류표에 따라 나타내며, 청구기호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③ O —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를 저자명이나 서명 등을 기준으로 개별화하고 배열하는 기호로, 청구기호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④ O — 권호기호는 여러 권이나 여러 호로 이루어진 자료에서 해당 권·호를 구별하기 위해 덧붙이는 부차적 기호이므로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ISBN도 책에 표시되는 번호이므로 청구기호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ISBN의 목적은 출판물의 국제적 식별이고, 청구기호의 목적은 도서관 안에서 자료의 위치 결정과 배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호가 서가에서 자료의 위치와 배열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분류기호·도서기호·권호기호처럼 서가 배열에 쓰이면 청구기호에 속하고, ISBN처럼 출판물 자체를 식별하는 표준번호이면 속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청구기호는 서가의 주소, ISBN은 출판물의 국제 식별번호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RDA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개념 모형으로 옳은 것은?

① MARC21과 ISBD

② Dublin Core와 EAD

③ FRBR과 FRAD

④ METS와 MOD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RDA의 이론적 기반인 개념 모형과 단순한 메타데이터 형식·기술표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A는 자원의 기술과 접근점 작성을 위한 내용표준이며, 이용자 과업과 서지·전거 데이터의 개체 및 관계를 체계화한 FRBR과 FRAD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다.
FRBR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등 서지 세계의 개체와 관계를 설명하고, FRAD는 개인·가족·단체·이름·식별기호 등 전거 데이터의 개체와 관계를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MARC21은 서지·전거 데이터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게 부호화하고 교환하는 형식이고, ISBD는 서지기술 요소와 그 제시 방식을 표준화한 기술표준이다. 틀린 부분은 ‘MARC21과 ISBD가 RDA의 이론적 기반인 개념 모형’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둘을 데이터 형식과 서지기술 표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② X
Dublin Core는 자원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고, EAD는 기록물 검색도구를 부호화하는 표준이다. 틀린 부분은 ‘Dublin Core와 EAD가 RDA의 이론적 기반인 개념 모형’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둘을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과 기록물 검색도구 부호화 표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③ O
FRBR은 서지 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FRAD는 전거 데이터의 기능적 요건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한다. 두 모형은 RDA가 자원과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도록 설계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④ X
METS는 디지털 객체의 여러 메타데이터와 파일 구조를 묶어 전달하는 XML 기반 포장·전송 표준이고, MODS는 MARC21에서 파생된 XML 기반 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틀린 부분은 ‘METS와 MODS가 RDA의 이론적 기반인 개념 모형’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둘을 메타데이터의 부호화·전송 및 표현을 위한 기술 형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도서관·기록정보 분야의 표준을 짝지어 제시하므로 이름만 익숙한 것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개념 모형인 FRBR·FRAD와 데이터의 기술·부호화·교환에 쓰이는 MARC21, ISBD, Dublin Core, EAD, METS, MODS를 같은 종류로 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론적 기반’이나 ‘개념 모형’을 물으면 개체·관계·이용자 과업을 설명하는 FRBR과 FRAD를 찾는다. XML, 요소 집합, 부호화, 교환, 전송, 스키마를 설명하는 용어는 구현·표현을 위한 기술표준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RDA의 개념 기반은 FRBR·FRAD,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은 MARC21·ISBD·Dublin Core·EAD·METS·MODS이다.

NoteBase

문 13. KDC와 DDC의 주류 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KDC는 언어가 700번대, DDC는 언어가 400번대이다.

② KDC와 DDC 모두 역사가 800번대이다.

③ KDC는 문학이 900번대, DDC는 문학이 800번대이다.

④ KDC와 DDC는 종교가 모두 100번대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와 DDC에서 언어·문학·역사·종교가 각각 어느 주류에 배정되는지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DC와 DDC는 지식을 000부터 900까지의 10개 주류로 구분하지만 일부 주제의 번호 배정이 다르다.
KDC: 종교 2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이다.
DDC: 종교 200, 언어 400, 문학 800, 역사·지리 900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언어이다. KDC의 700은 언어이고, DDC의 700은 예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KDC에서 언어는 700번대이고 DDC에서 언어는 400번대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역사가 800번대'이다. KDC와 DDC 모두 역사는 900번대이며, 800번대는 문학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KDC는 문학이 900번대'이다. KDC의 문학은 800번대이고 역사와 지리는 900번대이다. DDC의 문학이 800번대라는 부분은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종교가 모두 100번대'이다. KDC와 DDC 모두 종교는 200번대이며, 100번대는 철학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KDC와 DDC의 800번대가 모두 문학이고 900번대가 역사라는 공통점을 뒤바꾸거나, 두 분류표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번호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KDC의 언어 700과 DDC의 언어 400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통 배정인 종교 200·문학 800·역사 900을 확인한 뒤, 차이가 나는 언어를 KDC 700·DDC 400으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언어는 KDC 700, DDC 400이고, 문학 800·역사 900·종교 200은 두 분류표가 같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듀이십진분류법 제23판의 보조표에는 해당되나,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의 조기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종교공통구분
② 지역구분
③ 민족 및 국가구분
④ 언어구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보조표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의 조기표를 비교하여, DDC에만 독립적으로 마련된 구분표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 제23판은 제5보조표로 '민족 및 국가군'을 둔다. 반면 KDC 제5판의 조기표에는 표준구분표, 지역구분표, 국어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가 있으며, 민족 및 국가를 위한 독립 조기표는 없다. 따라서 두 분류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민족 및 국가구분'의 독립 표 존재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종교공통구분은 KDC 제5판의 조기표에 포함되므로 'KDC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종교공통구분은 KDC 제5판에 있는 조기표이며, DDC 제23판의 6개 보조표에는 같은 이름의 독립 표가 없다고 정리한다.
② X — 지역구분은 DDC 제23판의 제2보조표와 KDC 제5판의 지역구분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올바르게는 지역구분은 두 분류법에 공통으로 존재한다고 정리한다.
③ O — 민족 및 국가구분은 DDC 제23판의 제5보조표에 해당하지만, KDC 제5판에는 이에 대응하는 독립 조기표가 없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정확히 맞는다.
④ X — 언어구분은 DDC 제23판의 제6보조표에 해당하고, KDC 제5판에도 국어구분표와 언어공통구분표가 있으므로 언어 관련 구분 자체가 빠진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언어 관련 구분은 두 분류법에 모두 존재한다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종교공통구분은 DDC가 아니라 KDC의 특징인데, 낯선 명칭이라는 이유로 DDC에만 있는 표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④는 DDC의 '언어'와 KDC의 '국어·언어공통'이라는 명칭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체계로 오인하기 쉽다. 독립 표가 실제로 어느 분류법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분류법의 표 이름을 그대로 대조한다. 지역과 언어 관련 표는 양쪽에 있고, 종교공통구분은 KDC 쪽에 있으며, 민족 및 국가군은 DDC 제5보조표에만 있다는 기준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DDC 제5보조표는 민족·국가군, KDC 제6조기표는 종교공통구분이다.

NoteBase

문 15.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Top-Level 요소 가운데, MODS 레코드에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titleInfo>

② <name>

③ <originInfo>

④ <recordInfo>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MODS의 Top-Level 요소 가운데 스키마상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ODS는 서지자원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XML 스키마이다. Top-Level 요소 중 <titleInfo>는 자원의 표제 정보를 담는 필수 요소이고, <name>, <originInfo>, <recordInfo>는 기술 대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titleInfo>는 자원의 표제 정보를 기술하며 MODS 레코드에 필수로 사용되는 Top-Level 요소이다.
② X — <name>이 필수라는 점이 틀렸다. <name>은 저자·단체·회의명 등 자원과 관련된 이름을 기술하는 선택 요소이다.
③ X — <originInfo>가 필수라는 점이 틀렸다. <originInfo>는 발행처·발행일·발행지 등 자원의 생성·발행 정보를 기술하는 선택 요소이다.
④ X — <recordInfo>가 필수라는 점이 틀렸다. <recordInfo>는 메타데이터 레코드의 작성·변경·관리 정보를 기술하는 선택 요소이다.

오답 포인트

<name>, <originInfo>, <recordInfo>도 서지기술에서 자주 쓰이므로 필수라고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은 정보의 중요성이나 사용 빈도가 아니라 MODS 스키마의 필수 여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ODS의 필수 Top-Level 요소를 물으면 표제 정보를 담는 <titleInfo>를 찾는다. 나머지 요소는 해당 정보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기술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MODS의 필수 Top-Level 요소는 <titleInfo>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따를 때, 다음 주제에 대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809.1-.8 각 문학형식의 역사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문학형식에 의한 각국문학사는 해당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① 소설사 → 809.3
② 중국소설사 → 829.3
③ 일본희곡사 → 832.09
④ 풍자문학의 역사 → 809.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에서 문학형식 일반의 역사는 809.1-.8에 분류하지만, 특정 국가의 특정 문학형식 역사는 그 국가의 해당 문학형식 아래에 역사 세목 09를 붙인다는 원칙을 묻는다.

핵심 개념

국가를 한정하지 않은 문학형식의 역사는 809에 문학형식구분표의 형식 번호를 붙인다. 반면 각국문학의 특정 형식에 관한 역사는 해당 국가문학 아래의 문학형식 번호를 먼저 정하고, 그 뒤에 역사 세목 09를 붙인다. 따라서 중국소설사는 중국문학 820의 소설 823 아래에서 823.09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설사는 특정 국가를 한정하지 않은 소설의 역사이므로 809에 소설을 뜻하는 형식 번호 3을 붙인 809.3이 맞다.
② X — 틀린 부분은 '중국소설사 → 829.3'이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특정되었으므로 중국문학 아래에서 소설 823을 먼저 정하고 역사 세목 09를 붙여 '중국소설사 → 823.09'로 분류한다.
③ O — 일본희곡사는 일본문학 아래의 희곡 832에 역사 세목 09를 붙이므로 832.09가 맞다.
④ O — 풍자문학의 역사는 특정 국가를 한정하지 않은 문학형식의 역사이며, 풍자를 뜻하는 형식 번호 7을 적용한 809.7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역사'를 나타내는 9와 '소설'을 나타내는 3을 809.3과 비슷한 방식으로 배열하게 유도한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된 각국문학사는 809 아래가 아니라 해당 국가문학의 형식 구분 아래에 두고, 역사 세목 09를 마지막에 붙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제에 특정 국가가 있는지 확인한다. 국가가 없으면 809.1-.8에서 문학형식 번호를 적용하고, 국가가 있으면 '해당 국가문학 → 문학형식 → 역사 09'의 순서로 분류기호를 조합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형식사 = 809 + 형식 번호, 각국 형식사 = 해당 국가의 형식 번호 + 09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한국의 국가서지 주제명표목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중앙도서관

②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④ 국제도서관연맹(IFLA)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국의 국가서지에서 사용하는 주제명표목표를 개발·제공하는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는 도서관 자료의 주제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통제어휘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개발하고 국가서지의 주제정보로 제공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를 개발하고 사서지원서비스와 국가서지 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므로 옳다.
② X — 미국의회도서관은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한국의 NLSH 관리 기관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미국의회도서관'이며, 올바르게는 '국립중앙도서관'이다.
③ X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술·교육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NLSH를 개발·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며, 올바르게는 '국립중앙도서관'이다.
④ X —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각국 도서관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이므로 한국의 국가서지용 주제명표목표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국제도서관연맹(IFLA)'이며, 올바르게는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미국의회도서관은 널리 쓰이는 LCSH와 연결되고, ③의 KERIS는 국내 학술정보와 연결되므로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한국의 국가서지'와 'NLSH'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명표목표의 명칭과 관리 기관의 국가를 먼저 맞춘다. 한국의 NLSH는 국립중앙도서관, 미국의 LCSH는 미국의회도서관으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국 NLSH는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LCSH는 미국의회도서관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듀이십진분류표 제23판의 본표와 보조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따를 때, '한국어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류기호는?

220 Bible
220.53-220.59 Versions in other languages
Add to base number 220.5 notation 3-9 from Table 6

T6 -957 Korean

① 220.957
② 220.9575
③ 220.53957
④ 220.5957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듀이십진분류법의 합성 지시에 따라 본표의 기초기호에 보조표의 언어기호를 정확히 덧붙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본표에서 성경의 다른 언어판에 적용하는 합성 지시를 확인한다.
2. 지시된 기초기호 220.5를 취한다.
3. 보조표 6에서 한국어 기호 -957을 확인한다.
4. 기초기호 220.5에 957을 그대로 덧붙여 220.5957을 만든다.

이 순서가 필요한 이유는 본표가 지정한 기초기호가 먼저 정해져야 보조표 기호를 붙일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notation 3-9'는 사용할 수 있는 보조표 6 기호의 범위를 뜻하며, 숫자 3을 별도로 삽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20.957은 220.5라는 기초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220에 한국어 기호 957을 직접 붙인 형태이다. 올바르게는 220.5에 957을 덧붙인 220.5957이다.

② X — 220.9575는 한국어 기호 957 뒤에 기초기호의 5를 붙여 합성 순서를 뒤집은 형태이다. 올바르게는 기초기호 220.5를 먼저 쓰고 그 뒤에 957을 붙여 220.5957로 분류한다.

③ X — 220.53957은 ‘notation 3-9’의 3을 별도의 숫자로 잘못 삽입한 형태이다. 3-9는 허용되는 보조표 기호의 범위이므로, 한국어 기호 957만 기초기호에 붙여 220.5957로 고친다.

④ O — 본표의 지시대로 기초기호 220.5에 보조표 6의 한국어 기호 957을 덧붙인 220.5957이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notation 3-9’를 합성할 숫자 3과 9로 오해하거나, 보조표 기호를 220에 바로 붙이는 것이다. 지문이 기초기호 220.5를 명시했으므로 그 기호 전체를 유지한 뒤 957을 이어 붙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 지시가 나오면 ‘기초기호 확인 → 해당 보조표 기호 확인 → 지시된 순서대로 연결’의 세 단계로 판단한다. 범위 표시는 추가할 숫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보조표 기호의 범위로 해석한다.

암기 포인트

한국어 성경은 220.5 + 957 = 220.5957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를 발췌한 것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자기호로 옳은 것은?

자음기호		모음기호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		모음기호 (초성이 ㅊ인 글자)	
ㄱㄲ	1	ㅏ	2	ㅏ(ㅐ ㅑ ㅒ)	2
ㄴ	19				
ㄷㄸ	2	ㅐ(ㅑ ㅒ)	3	ㅓ(ㅔ ㅕ ㅖ)	3
ㄹ	29				
ㅁ	3	ㅓ(ㅔ ㅕ ㅖ)	4	ㅗ(ㅘ ㅙ ㅚ ㅛ)	4
ㅂㅃ	4				
ㅅㅆ	5	ㅗ(ㅘ ㅙ ㅚ ㅛ)	5	ㅜ(ㅝㅞㅟㅠㅡㅢ)	5
ㅇ	6				
ㅈㅉ	7	ㅜ(ㅝ ㅞ ㅟ ㅠ)	6	ㅣ	6
ㅊ	8				
ㅋ	87	ㅡ(ㅢ)	7		
ㅌ	88				
ㅍ	89	ㅣ	8		
ㅎ	9				

① 이청준 → 이84

② 김규식 → 김16

③ 웰, 테리 → 웰884

④ 웹스터, 헨리 → 웹9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저자명에서 기호화할 글자의 초성과 중성을 찾고, 제5표의 자음기호와 모음기호를 차례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초성이 ㅊ이면 별도의 모음기호 열을 적용한다.

자료 읽는 순서

1. 한국인명은 성 다음 첫 글자를, 서양인명은 쉼표 앞 성의 둘째 글자를 기호화 대상으로 잡는다.
2. 대상 글자의 초성을 자음기호로 바꾼다.
3. 중성을 모음기호로 바꾸되, 초성이 ㅊ이면 '초성이 ㅊ인 글자' 열을 적용한다.
4. 이름의 첫 글자 뒤에 자음기호와 모음기호를 차례로 붙인다.

NoteBase

핵심 근거

‘김규식’은 성 ‘김’ 뒤의 ‘규’를 기호화한다. ‘규’의 초성 ㄱ은 1, 중성 ㅠ는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 열에서 6이므로 저자기호는 ‘김16’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청’의 초성 ㅊ은 자음기호 8이고, 중성 ㅕ는 ‘초성이 ㅊ인 글자’ 열에서 모음기호 3이다. ‘이84’가 아니라 ‘이83’이 된다.
② O — ‘규’의 초성 ㄱ은 1, 중성 ㅠ는 모음기호 6이므로 ‘김16’이 된다.
③ X — 성이 한 음절인 ‘웰’은 문자기호 뒤에 쉼표를 붙이고, 다음 글자 ‘테’를 종성까지 숫자기호화한다. ‘테’의 초성 ㅌ은 88, 중성 ㅔ는 4이므로 ‘웰884’가 아니라 ‘웰,884’가 된다.
④ X — ‘웹스터’에서는 성의 둘째 글자 ‘스’를 기호화한다. ‘스’의 초성 ㅅ은 5, 중성 ㅡ는 7이므로 ‘웹94’가 아니라 ‘웹57’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초성 ㅊ에 일반 모음기호 열을 적용하면 ㅕ를 4로 잘못 읽게 된다. ③·④에서는 쉼표 뒤의 이름을 기호화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서양인명은 쉼표 앞의 성 안에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호화할 글자를 확정한 뒤 초성의 자음기호와 중성의 모음기호를 순서대로 찾는다. 초성이 ㅊ인지와 서양인명의 쉼표 위치를 별도로 확인하면 열 선택과 대상 글자 선택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김규식은 규의 ㄱ·ㅠ로 김16, 이청준은 ㅊ 전용 모음열로 이83이다. 서양인명은 쉼표 앞 성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문 20.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의 저자명에 해당하는 번호가 없는 저자명의 경우에는 바로 앞의 번호를 채택하여 기재한다.

② 숫자 '0' (zero)은 알파벳 대문자 'O'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저자명 중 Mc, Mac, M'으로 시작되는 저자명은 자료의 표기에 관계없이 모두 Mc로 처리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④ 전기자료는 그 대상 인물의 이름을 기호화하고, 저자명을 저자기호로 기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에서 표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 없을 때의 처리, 숫자 0의 사용, Mc·M'·Mac의 배열, 전기자료의 기호 부여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는 같은 분류기호 아래의 자료를 저자명 등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를 결합한 기호를 부여하는 표이다. 이름이 표의 두 항목 사이에 놓이면 앞의 낮은 번호를 쓰고, 숫자 0은 대문자 O와의 혼동 때문에 쓰지 않는다. Mc, M', Mac으로 시작하는 이름은 모두 Mac으로 철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기자료는 동일 인물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전기 대상자의 이름으로 기본 기호를 정하고 저자의 성을 나타내는 글자를 덧붙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자명이 표의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두 번호 사이에 놓이면 바로 앞의 낮은 번호를 채택한다.

② O. 숫자 0은 알파벳 대문자 O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모두 Mc로 처리'이다. 실제로는 Mc, Mac, M'으로 시작하는 저자명을 모두 Mac으로 철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④ O. 전기자료는 같은 대상 인물에 관한 자료가 함께 배열되도록 전기 대상자의 이름으로 기본 기호를 정하고, 저자의 성을 나타내는 글자를 뒤에 덧붙여 저자별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세 접두형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통일 기준을 Mc라고 바꾸어 놓았다. 기준 철자는 Mc가 아니라 Mac이다. ④에서는 전기자료의 저자와 전기의 대상 인물을 뒤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름이 표에 없으면 앞 번호, 0은 사용하지 않음, Mc·M'·Mac은 Mac으로 통일, 전기자료의 기본 기호는 대상 인물의 이름이라는 네 규칙을 차례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없는 이름은 앞 번호, 0은 제외, Mc 계열은 Mac, 전기는 대상 인물 중심이다.

NoteBase

문 21.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FRBR에서는 서지적 영역을 대상으로 정보원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검색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0개의 개체로 추출한 후 그것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② FRBR은 목록레코드의 데이터 요소를 이용자 요구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재편한 것이다.

③ FRBR은 데이터 요소의 구조 방법이나 표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요소를 유형화하고, 이들 데이터 요소들이 각각의 고유한 레코드 중에서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지적인 틀을 제공한다.

④ FRBR은 서지레코드로 기록된 데이터와 이용자 요구를 연결시키기 위해 명확히 구조화된 전거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FRBR이 서지레코드의 데이터와 이용자 요구를 연결하는 개념적 모형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데이터 구조·표현 형식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RBR은 서지 세계의 개체, 속성, 관계를 분석하여 서지레코드에 담긴 데이터가 이용자의 과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는 개념적 모형이다. 제1집단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제2집단은 개인·단체, 제3집단은 개념·대상·사건·장소이며 모두 10개 개체로 구성된다. FRBR은 이러한 논리적 틀을 제시하지만 특정 레코드 형식, 저장 구조, 데이터 요소의 배열이나 화면 표시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FRBR은 서지적 영역에서 이용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10개 개체를 추출하고 이를 3개 집단으로 나눈다. 제1집단 4개, 제2집단 2개, 제3집단 4개이다.
② O — FRBR은 서지레코드의 데이터 요소를 이용자의 과업과 연결해 분석하도록 재구성한 개념적 모형이다. 즉 레코드 중심의 요소를 이용자 요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③ X — 틀린 부분은 '데이터 요소의 구조 방법이나 표현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고유한 레코드 중에서' 관계를 제시한다는 표현이다. FRBR은 개체·속성·관계에 관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모형을 제공할 뿐, 특정 데이터 형식이나 표현 방식 또는 레코드별 저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④ O — FRBR은 서지레코드에 기록된 데이터와 이용자 요구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조화된 준거, 즉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전거는 특정한 전거레코드 형식을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라는 의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FRBR이 '논리적 모형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 구조와 표현방식까지 정한다'는 말로 바꾼 선지이다. 개념 모형과 실제 레코드의 구현 규칙을 동일하게 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BR에 관한 선지는 먼저 '개체·속성·관계와 이용자 과업을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인지 확인한다. 특정 저장 형식, 레코드 구조, 배열 또는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FRBR의 범위를 넘어선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BR은 10개 개체·3개 집단의 개념적 틀이며, 구체적인 레코드 형식이나 표현 규칙이 아니다.

NoteBase

문 22. LCC(미의회도서관분류법)의 기호법으로 옳은 것은?

① 아라비아숫자만 사용

② 로마숫자만 사용

③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 혼합 사용

④ 알파벳만 사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LCC(미의회도서관분류법)의 분류기호가 문자와 숫자를 결합한 혼합기호법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LCC는 주류와 하위 분류를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그 아래의 세부 주제를 아라비아숫자로 전개하는 혼합기호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LCC의 분류기호에는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가 함께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아라비아숫자만 사용'이다. LCC는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로마숫자만 사용'이다. LCC의 분류기호는 로마숫자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O
LCC는 주류·하위 분류를 나타내는 알파벳과 세부 전개에 쓰이는 아라비아숫자를 결합하므로 옳다.

④ X
틀린 표현은 '알파벳만 사용'이다. 알파벳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부 주제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도 함께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LCC의 대분류가 알파벳으로 표시된다는 사실만 떠올리면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전체 분류기호는 알파벳에 아라비아숫자를 결합한 형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법의 기호법을 물으면 대분류뿐 아니라 세부 전개에 쓰이는 기호까지 확인한다. LCC는 문자와 숫자를 함께 쓰므로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의 혼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LCC는 알파벳+아라비아숫자의 혼합기호법이다.

NoteBase

문 23. 다음 중 KORMARC의 주제명부출표목으로 필드와 기술이 옳게 작성된 것은?(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610 a게이츠, 린다 v강연집

② 630 a불전. p화엄경 x해설

③ 650 a한강 x생태계

④ 651 aArchitecture, Modern y19th centur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ORMARC 주제명부출표목의 필드 번호를 표목의 성격과 연결하고, 세목기호가 알맞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600은 개인명, 610은 단체명, 630은 통일표제, 650은 일반주제명, 651은 지명을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필드이다. 630에서 a는 통일표제, p는 권제·편제, x는 일반주제세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게이츠, 린다는 개인명이므로 단체명 주제명부출표목인 610을 사용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610'이며, 올바르게는 '600 a게이츠, 린다 v강연집'으로 기술한다.

② O
'불전. 화엄경'은 저작의 통일표제를 주제로 삼은 것이므로 630 필드가 알맞다. 기본 통일표제 '불전'은 a, 그 하위 권제·편제인 '화엄경'은 p, 일반주제세목 '해설'은 x에 기술한다.

③ X
한강은 지명이므로 일반주제명 필드인 650이 아니라 지명 주제명부출표목인 651을 사용한다. 올바르게는 '651 a한강 x생태계'로 기술한다.

④ X
'Architecture, Modern'은 지명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일반주제명이므로 651이 아니라 650을 사용한다. 올바르게는 '650 aArchitecture, Modern y19th century'로 기술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a에 적힌 말의 의미보다 세목기호만 보고 판단하면 ①·③·④의 필드 오류를 놓치기 쉽다. 특히 '한강'은 생태계라는 주제와 결합되어 있어도 표목 자체가 지명이므로 651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a에 들어가는 표목이 개인명·단체명·통일표제·일반주제명·지명 중 무엇인지 정한 뒤 각각 600·610·630·650·651에 대응시킨다. 그다음 v·x·y 등 세목기호가 형식·일반주제·연대 세목에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 600, 단체 610, 표제 630, 일반주제 650, 지명 651이다.

NoteBase

문 24. KCR 제5판에서 단행본 발행 사항 영역의 기술 순서로 옳은 것은?

①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지 - 발행연도

②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연도

③ 발행연도 -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④ 발행지 - 발행연도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KCR 제5판에서 단행본의 발행 사항을 배열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연도
발행 사항은 책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나타내도록 발행 장소, 발행 주체, 발행 시기의 순서로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발행자를 발행지보다 먼저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연도이다.
② O — 발행지,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발행연도의 순서로 배열하므로 옳다.
③ X — 발행연도를 맨 앞에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발행지를 먼저, 발행자를 다음에, 발행연도를 마지막에 기술한다.
④ X — 발행연도를 발행자보다 먼저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발행지 → 발행자(발행사, 발행처) → 발행연도이다.

오답 포인트

세 요소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배열 순서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발행지 다음에는 발행연도가 아니라 발행자가 온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행 사항의 순서는 '어디에서 → 누가 → 언제'로 대응하여 발행지 → 발행자 → 발행연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발행 사항은 장소·주체·시기, 즉 발행지·발행자·발행연도 순이다.

NoteBase

문 25. 듀이십진분류법 제23판의 최후수단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문헌에 대해 다수의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기호가 모두 동등하게 유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종의 우선순위이다.

② 사물의 종류(kinds)가 사물의 일부(parts)보다 우선이다.

③ 사물의 일부(parts)가 사물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재료(materials)보다 우선이다.

④ 사물이나 재료(materials)에 대한 작업(operations)이 사물이나 재료의 속성(properties)보다 우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듀이십진분류법 제23판의 최후수단표가 언제 적용되며, 어떤 순서로 분류기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후수단표는 한 문헌에 적용 가능한 여러 분류기호가 모두 동등하게 유익하여 다른 원칙만으로 하나를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최종 우선순위이다. 우선순위는 종류(kinds) → 부분(parts) → 재료(materials) → 속성(properties) → 과정(processes) → 작업(operations)의 순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여러 분류기호가 모두 동등하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의 기호를 결정하도록 마련된 최종 우선순위라는 설명이 맞다.
② O — 최후수단표에서는 사물의 종류(kinds)가 사물의 일부(parts)보다 앞선다.
③ O — 사물의 일부(parts)는 그 사물이나 부품을 이루는 재료(materials)보다 앞선다.
④ X — 틀린 부분은 '작업(operations)이 속성(properties)보다 우선'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속성(properties)이 작업(operations)보다 우선하며, 전체 순서에서도 속성 뒤에 과정(processes), 작업(operations)이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작업이 속성보다 먼저인 것처럼 순서를 뒤집었다. 최후수단표의 뒤쪽 순서는 속성 → 과정 → 작업이므로, 작업이 속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여러 기호가 동등하게 유익한 상황인지 확인한 뒤, 종류 → 부분 → 재료 → 속성 → 과정 → 작업의 순서와 각 선지를 대조한다. 앞에 놓인 항목이 우선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종-부-재-속-과-작: 종류, 부분, 재료, 속성, 과정, 작업 순이다.

NoteBase